

## KB국민銀, 재활용문화 선도 친환경캠페인

서울 여의도 본점 정문에 재활용 회수 '네프론' 설치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본점 정문에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을 설치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네프론 이용고객이 본인의 포인트를 KB국민은행 계좌로 환급받는 경우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조성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셜벤처 수퍼빈이 개발한 네프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재활용 회수 로봇이다. 페트병이나 캔을 자판기에 투입하면 품목별로 수거한 뒤 휴대전화 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수퍼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수퍼빈, 한국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자원순환인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본점 정문에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을 설치했다. /국민은행

식재고를 위한 친환경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더불어 네프론이 설치된 서울 소재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친환경·플라스틱 저감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환경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Sh수협은행, 한국해운조합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은 은행과 협약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은행에 예금을 무이자로 예치하고 대출지원 대상을 추천하며, 은행은 협약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추천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오른쪽)과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왼쪽)이 지난달 31일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Sh수협은행

## 지주사 효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효성이 31일 지주사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과 국문 2개 버전이다. 보고서는 회사의 경제와 사회, 환경 등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중점사업과 경영사태 ▲지속가능경영 ▲지배구조로 구성했다.

앞서 효성은 2012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18년 6월 ㈜효성과 효성

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로 분할하며 지주회사 체제를 공식 출범한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발간사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백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이대서울병원, 대방건설과 프로골프 선수단 건강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대서울병원이 대방건설과 대방건설 소속 프로골프 선수단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이대서울병원은 웰니스 건강증진센터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한 대방건설 소속 프로골프 선수단의 건강관리 및 증진 업무를 진행하며, 대방건설은 선수단의 건강 파트너로서 이대서울병원의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편옥범 이대서울병원장(왼쪽)과 구찬우 대표이사(오른쪽)가 협약서 사인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의 의결 정족수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

다만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내용일 때에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만 의결됩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 이는 2012. 2. 1. 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이 사후적으로 대폭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이 당초에 비하여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조합의 비용 부

담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조합의 비용 부담'은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동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제3항).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 대법원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 판결이 그러한 입장입니다. 위 판결은 문제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2007다31884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의 찬성만이 있었다고 보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구합278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1. 개정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50886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또한 위 사건의 경우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 쟁점에 관해서 2012. 2. 1. 개정 이후 정면으로 다른 대법원 판결이 없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가 증가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 삼표그룹, 빈곤국 신생아 위한 털모자 뜨기

'삼표와 그린 생명 더하기' 진행 임직원 30여명 참석, 107개 전달

삼표그룹은 저체온증으로 고통받는 빈곤국 신생아를 위한 털모자 뜨기 운동인 '삼표와 그린 생명 더하기'를 진행한다(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개질, 바느질 등으로 구성된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키트' 전달식을 가졌다.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털모자 104개는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돼 세네갈·코트디부아르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삼표와 그린 생명 더하기는 털모자를 직접 뜨서 보건환경이 열악한 산모·신생아에게 보내주는 참여형 기부활동이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큰 아프리카



'삼표와 그린 생명 더하기'에 참가한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뜨 털모자 등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 지역에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털모자를 씌워주면 체온을 2℃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털

모자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계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도울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인사

-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구조개선총괄부장 홍준모 △채권관리부장 김봉환 ◇2급 승진 △기획조정부 팀장 이혁재 △은행금투관리부 팀장 강호성 △회수총괄부팀장 이종수 △기금관리실 팀장 임종호 ◇3급 승진 △이동근 이상재 박기선 정경아 ◇4급 승진 △윤가하 김철중 윤혜선 원형운 장진영 정지원 박준석
-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부회장 우종순 △사장 선상신 △부사장 겸 편집국장 정

규성 △미래전략실장 홍성필 △건설부동산부장(부국장대우) 이상민 △사회2부장 권태욱

◆**제주일보**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김태형 △편집국장 부남철

### 부음

▲김제홍씨 별세, 김진희(기도산업 이사)·김영태(한국보그워너TS 근무)·김영수(연합뉴스TV 뉴스진행팀장)·김영호(크레아어쏘시에이션 대표)씨 부친상, 최종락(신

촌세브란스병원 교수)씨 장인상 = 1일 오후 9시13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빈소 17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02-2227-7590

▲김영록씨 별세, 윤동현(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설비1과장)씨 장인상 = 2일 오후, 전남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061-242-7000

▲김상호 씨 별세 = 김정훈(샘플전자 대표)·정철(파워센터 대표)·정민(한화투자증권 감사실장)씨 부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02-2227-7500